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연합뉴스	온라인	[민선8기 1년]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특별자치도 성공 ...	1
江原日報	11면	"'횡성 4대 특례' 특별법 개정때 반영"	4
江原日報	11면	횡성 농업인학습단체 화합의 장	5
강원도민일보	14면	평창군 하진부4리 경로당 개소	5
KBS 춘천	온라인	[집중취재] 국민의힘, 내년 총선 체제 돌입...지역 조직 일...	6
강원도민일보	01면	정동진 차이나시티 계획연장만 세번째 '실효성 논란'	7
강원도민일보	06면	"상공인 자유롭게 찾는 교류의 장 만들 것"	8
江原日報	21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춘천)	8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8
東亞日報	16A	"고향 발전을 위하여..." 강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7억...	9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형 첨단산업 조기안착 노력 '특자도 정체성' 정립 과제	9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형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2025년 준공	1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도 변경	10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 초교 평가계획' 놓고 교육계 대립 심화	11
강원도민일보	13면	"횡성 미래먹거리 규제완화 특례 반영 최선"	12
강원도민일보	01면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13
강원도민일보	04면	"강릉 주문진 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 청정지역 지킬 것"	13
강원도민일보	04면	비 그치고 무더위 '오락가락'... 오늘 영동 일부 열대야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막아야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임금 격차 큰데 누가 오겠나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반도체교육센터, 클러스터 조성 마중물 되어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자연재해 대응 역량 키울 때 人災 막을 수 있어	18

2023 06 27 ()



[민선8기 1년]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협력.소통"

"도와 협력.견제하고, 규제 완화 남용 안 할 것...도민 기대 걸맞게 심사"
"전문성.독립성 강화 4개 특례안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엔 꼭 반영"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민과의 통합과 협력"이라며 "도민의 도정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단연 유의미한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며 "규제를 풀 권한이 생겼지만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권 의장과 일문일답.

-- 지난 1년간 의정 운영 소감은.

제11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하고 의장으로 선출된 게 엿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을 갖고 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었다. 모든 게 '강원도 발전'이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다. 하마터면 '빈껍데기 특별자치도'로 출발할 뻔했지만, 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었다. 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뭉쳐야 산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를 소개합니다

(춘천=연합뉴스)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청.도의회 현판식에서 권혁열 도의회 의장(왼쪽)과 김진태 도지사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1395년 지명을 정한지 628년 만에 새 이름을 얻고 '강원특별자치도'로 지난 11일 오전 0시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쉽게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도의회와 관련된 4개의 특례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는데.

애초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도민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기 위한 도의원 정수 특례와 선거구 획정 특례,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특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의회 자치권 보장 특례가 있었다. 비록 이번 개정안에 해당 특례조항들이 아쉽게 빠졌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인 만큼 앞으로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

-- 개정된 강원특별법에 '도 조례로 정한다'는 표현이 56번 나온다.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이 도의회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민과의 통합과 협력이며, 그 통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통과 실천이라고 믿는다. 도민의 도정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이며 사명이다. 특별자치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정과 긴밀히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 규제를 풀 권한이 생겼지만 남용하지 않겠다. 특례안 추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 시 깊이 있는 입법 심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쳐나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힘찬 새 출발'

(춘천=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 현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이 열려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과 현직 도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류도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 의견을 공유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특례안을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었다.

또 17년간 특별자치도의 길을 걸어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험과 비결을 적극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비롯해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로 교류하며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새 시대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또 이번에 미반영된 특례안은 3차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달라.

conanys@yna.co.kr

江原日報

2023 06 28 ()

11

“‘횡성 4대 특례’ 특별법 개정때 반영”

【횡성】지역 4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 4가지 특례 반영을 위해 횡성군이 사활을 건다.

김명기 군수는 27일 횡성문화원 1층 발표회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에서 강원특별법 특례와 횡성군 주요 사업, 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군수는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도지사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며, 횡성 스마트팜 특구 조성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특례로 농촌 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변경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30만㎡에 달하는 모빌리티 신활력 특화도시에는 연구개발특구 조성 요청 권한 신설과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례가 절실하고, 우천 오원지구 문화

김명기 군수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서 발표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도지사 이양 강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7일 횡성문화원 1층 발표회장에서 김진태 도지사, 김명기 군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광개발 사업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신설 특례로 산지관리법 행위 제한 기준 완화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횡성군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 이 같은 특례가 반영되도록 총력

을 경주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 이관인 횡성읍 변영회장은 원주권 상수원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고연섭 법국민추진협의회 횡성군 위원 이 산림이용진흥지구 총량 관리와 시·군 안배에 대해, 김미

숙 추동리 이장이 주민 체감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대해 각각 질문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환경, 산림, 농업, 군사 등 4대 규제 혁파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산림, 농업 분야 규제 철폐 권한은 상당 부분 도지사로 이관시켰고, 나머지 분야도 다시 진행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전원,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정일섭 도 행정국장,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 우광수 횡성문화원장, 이상면 횡성군이장협의회장 등 지역 사회단체장, 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6 28 ()

11

횡성 농업인학습단체 화합의 장

군농기센터 한마음 대회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27일 횡성실내체육관과 어울림 마당에서 '2023년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최규만 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과 이번 대회 대회장인 원정숙 생활개선회 횡성군협의회

장, 임원규 농촌지도자 횡성군협의회장, 한동군 횡성군 4-H회장을 비롯,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등 8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한마음 행사와 어사매동당 공연 등 개회식에 이어 화합 프로그램으로 읍·면 대항 4종 어울림 한마음 경기가 진행됐다. 또 농업인학습단체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 1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횡성=유학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14



평창군 하진부4리 경로당 개소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4리 경로당 개소식이 27일 심재국 군수, 최종수 도의원, 김광성 군의원과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마을 어르신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소한 경로당은 군이 모두 4억 8500만 원을 들여 지상 1층 99㎡ 규모로 신축했다.

2023 06 27 ()

KBS 춘천

[집중취재] 국민의힘, 내년 총선 체제 돌입... 지역 조직 일제 정비



[앵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0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없는 '원주을' 선거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후보 신청을 받는 등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을' 국회의원 선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2016년부터 두 번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강원특별자치도의 8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도,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내지 못한 곳입니다.

결국, 당협위원장 전 단계인 조직위원장을 다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해 면접까지 치르고도 끝내 책임자를 뽑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응모했던 6명에 현역 도의원들까지 가세해 후보군이 8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장 :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 또한 공직 윤리가 확립돼서 지역에서 신망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차원에선 내년 선거용 공약과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편도심 총선거획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도당에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국민의힘 강원도당 일편도심 총선거획단장 : "앞으로는 또 우리 각 지역의 선거구 별로 총선거획단의 미팅 장소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여론이나 주민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당의 수장도 바뀔니다.

지금은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다음 달(7월) 중순쯤에는 원주갑의 박정하 의원이 이 자리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바뀌고 나면, 도당 차원의 조직 정비와 국회의원 선거 준비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송승룡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1

정동진 차이나시티 계획연장만 세번째 '실효성 논란'

올림픽 특구 정동진 숙박 사업
업무협약 후 9년째 제자리걸음
중국계 회사 8월까지 자료 제출
"투자 아닌 부동산 투기" 지적도

평창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추진됐던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9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투기' 우려까지 제기되며 사업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표적인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꼽혔던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은 전임 최문순 도정 당시 첫 기획됐다. 그러나 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에도 사업은 장기 표류했고 당초 약속됐던 외자유치 계획 역시 이행되지 못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까지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 연장요청에 따른 보완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1년 연장 요청함에 따라, 당시 기한이 만료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보완을 요청했었다.

이같은 실시계획 연장은 벌써 세번째다. 사업 시행자인 중국계 투자회사 차오다이홀딩스(대표 우더친)는 도에 지난 2016년 사드 갈등, 2018년 미·중 무역갈등, 최근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실시계획 기간을 1년→4년→1년 등 세 차례 연장 요청했었다. 첫 업무협약

은 지난 2014년 7월이다. 사업은 9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기업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호균(강릉)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외국계 법인이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까지 가지 않고, 토지를 우리나라 법인에 다시 매각하는, 그래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순(강릉) 의원도 "중국인들이 제주 땅 사듯, 이런 건 투기라고 봐야지,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이행된 게 하나도 없으니 사업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 허가권'을 따놓고 투자 없이 부지를 되파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로, 이 경우 부지가 적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김선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대위원은 "지자체는 경제유발효과를 예상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외국계 기업에 개발 허가권을 준다"며 "하지만 기업은 허가권만 얻고 공사를 미루다가 새 매수자에게 팔아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다. 개개인은 개발 허가권을 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안전장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균 도 올림픽 시설과장은 "개발계획이 취소가 되면 당초대로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은 지난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했다. 거래시 강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철화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6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는 27일 동면 장학리 소양강변 현지에서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등 도의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전수산 춘천상의 상임 고문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서영

“상공인 자유롭게 찾는 교류의 장 만들 것”

춘천상의 신축회관 기공식

창립 82주년을 맞이한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가 처음으로 신축 이전, 강원특별자치도시대 춘천권역 상공인들의 새로운 교류의 장을 구축한다.

춘천상의는 27일 동면 장학리 소양강변 현지에서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회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등 도의원, 전수산 춘천상의 상임 고문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50여



춘천상공회의소 신축 회관 조감도.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춘천상의는 대지면적 1452㎡, 건축면적 270㎡에 지상 4층 규모의 회관을

신축한다. 1층은 춘천시민을 위한 창업과 문화 복합 공간, 2층은 각종 자격검정 및 시험 공간, 3층 춘천상의 사무국, 4층은 회의·교육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춘천상의는 기업 여건상 자체 시설의 부재와 미흡으로 교육, 회의, 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기업이 신축회관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애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광만 회장은 “신축회관 건립은 창립 100주년을 향한 힘찬 재도약”이라며 “상공인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호석

江原日報

2023 06 28 ()
21

제20기 핵심리더 특강

◇정재웅도의회사회문화위



더 특강에 참석.

원장(춘천)은 28일 오후 1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0기 핵심리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9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28일 오후 1시

춘천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20기 핵심리더 특강에 참석한다.

東亞日報

2023 06 28 ()

/ 16A

“고향 발전을 위하여...” 강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7억 돌파

전체 기부 건수 1만2330건 달해
유명인-기업인 고액 기부 잇따라

출향 인사 대상 애향심 마케팅
답례품 품목 다양화 등 홍보 성과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7억 원을 넘어섰다. 27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체 기부 건수 1만2330건, 기부액 1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원도를 비롯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철원 등 8개 시군은 각각 1억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주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애향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춘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상표 디자인을 확정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춘천의 자음인 ‘츄츄’



양구 출신인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왼쪽)이 1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김진태 도지사에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왼쪽 사진). 원주 출신의 프로골퍼 김효주 선수(오른쪽)가 지난달 22일 원주시청을 찾아 원강수 시장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강원도·원주시 제공

과 하트를 결합한 형태로 이 상표 이미지를 포스터와 현수막 등 새로 만드는 각종 홍보물과 답례품 포장 봉투 및 테이프에 사용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또 개그우먼 리리가 출연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했고, 지역 대표 음식인 닭갈비는 물론 감자

빵과 주류 화전일취 등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활용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15일 국립공원공단,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해 기부제



답례품을 전시하고 현장 기부 체험 및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했다.

영월군은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답례품 품목 공급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영월군은 기부의 77%가

10만 원 기부인 점을 감안해 3만 원 이하에서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성군은 300번째 기부자, 5000만 원 돌파 기부자 등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행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은 기부제 목표액인 1억 원이 달성될 때까지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명인과 기업인들의 고액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지승하 신홍필라테크 대표와 경기 성남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유종환 씨가 고향인 철원에, 양구 출신의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이 강원도에 각각 기부제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원주 출신의 프로골퍼 김효주 선수, 춘천 출신으로 반도체장비 제조회사를 운영했던 권혁복 씨도 각각 고향에 500만 원을 쾌척했다.

박송림 강원도 세정과정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6개월을 맞아 유명인과 기업인들의 기부가 잇따르면서 기부제의 의미와 효과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3

강원형 첨단산업 조기안착 노력 ‘특자도 정체성’ 정립 과제

18 민선 8기 출범 1년

동서고속철 등 굵직한 현안 해결
김, 정치인→행정가 연착륙 평가
수도권 중심 산업, 갈 길 먼 강원

오는 7월 1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취임 1년을 맞는다. 강원도정은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보수진영으로 교체됐다. 시·군은 18곳 중 14곳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으로 재편된 강원도 권력 지도는 지난 1년을 거치며 적지않은 변화를 겪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시리즈를 연재한다.

① 김진태 도정, 특자도 출범 현안 안착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는 우여곡절 끝에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정치권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특별법 개정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김 지사를 포함한 도내 여야 정치권, 18개 시·군, 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 강원도민회 중앙회 등 전 강원도민들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했던 당시, 김 지사는 국회 천막 농성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22~25일, 국회에서의 나흘은 강원도민이 하나 돼 결기하고, 사발, 천막농성까지 했는데, 정말 여야도 영동·영서도 없이 강원도가 하나 된 시간이었다”고 했다.

지난 9일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식 당시, 현직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참석은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윤 대통령의 강원 1호 공약이다. ‘경제특별자치도’로 공약했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출범한 가운데 집권 2년 차를 맞는 김 지사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법 적용에 따라 그간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규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은 강원형 첨단산업 추진에 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반도체 공장 유치 를 중심으로 강원형 첨단산업 지도가 새롭게 짜여지게 되지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 강원형 반도체 산업 입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 더욱이 경기 용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흐름 속에서 비수도권 강원은 걸음마 단계다.

7월 말 강릉에 개칭하는 강원특별자치도청 2층사의 본격적인 운영도 여전히 부담이다. 김 지사는 관광, 수소산업, 해양물류 등 영동권 특화산업의 질과 양을 채우며 영서권 분청과의 균형, 분산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레고랜드 쇼크 사태, 알펜시아, 동해관광지구 등 전임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최문순 전도정 지수기에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도정사상 첫 국비 9조원 시대 개막, 41년 만에 재추진된 오색케이블카 사업,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등 굵직한 도정 현안들을 풀어나가면서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정기관 한 관계자는 “감사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보수투사’로 각인됐던 김 지사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4

강원형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2025년 준공

농가·기업 상생 산업활성화 총력

강원특별자치도가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곤충식품, 사료제조 등 산업활성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7일 농산물원종장 동산별관에서 곤충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원형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미양행, 프로토텍, 케일, 케이 스마트양식 등 기업 관계자와 강릉 과학산업진흥원·강원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곤충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스마트 팩토리팜, 임대형 스마트팜, 사료제조시설, 첨단융복합센터 등을 갖추고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연구기관·식품기업 등 27개 기관·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곤충식품 산업화와 바이오 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강원형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통해 농가와 거점단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발전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곤충은 미래 그린바이오산업의 한 분야로 미래식량과 바이오소재 등 농식품 산업에서 가치 창출 가능성이 무궁한 영역”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곤충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4

도교육청,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도 변경

1차 합격 2배수→1.5배수 조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른 지역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 실시되는 ‘202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1차 시험 합격 선발 배수를 조정한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달라지는 강원특별

자치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도 사전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학년도 임용시험부터 1차 시험 합격 선발 배수가 기존 2배에서 1.5배수로 조정된다. 또한 오는 2025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교직적성 심층면접출제방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로 변경되며, 제2차 시험 과목에 대한 배점도 조정된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4

‘강원 초교 평가계획’ 놓고 교육계 대립 심화

도내 교원단체 반발 철회 요청

도교육청 “교사 기본적 직무” 반박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강원도내 초등학교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70%이상을 반영하도록 개정된 지침을 전달(본지 6월 27일자 4면)하자 도내 일부 교원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27일 강원교사노조는 ‘2023 초등학교 학생평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공문에서 노조는 “지침 시행일자가 8월부터인데 그보다 앞선 7월부터 해당 지침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성취기준 비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면 수행평가 횟수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전교조 강원지부도 반대에 동참했다. 전교조는 입장문에서 “교육

청의 이번 계획은 교육부 고시에 위배된다”면서 “70%이상 평가는 근거가 없는 임의 명령이며, 교사가 학생을 보기도 전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 비판했다.

이처럼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취기준은 애초 100%를 확인해야 하나 현장 어려움을 고려해 70% 수준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제대로 된 평가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업무가 아닌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며 반박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장에서 70%이상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13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7일 횡성문화원에서 김진태 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김영숙 횡성군의회장을 비롯한 군의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횡성 미래먹거리 규제완화 특례 반영 최선”

찾아가는 특자도 도민설명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횡성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27일 횡성문화원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지역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규제개선 내용과 첨단과학기술

술단지 조성, 연구개발 특구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 등 강원형 미래산업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 등을 소개했다.

김명기 군수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군의 주요 특례를 소개하고, 특별법 개정안의 규제완화를 통해 횡성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및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 100만평 규모의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횡성군 진입관문인 목계리 지역의 발전, 미래 먹거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행위 완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지구지정·시범운영·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및 권한이양 등의 특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2023 06 28 ()
01

강원도민일보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선)는 27일 주문진 항 물양장에서 강릉 주문진·양양 일대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4

“강릉 주문진 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 청정지역 지킬 것”

강릉·양양 총궐기대회 식발 투쟁
주민 1000명 거리행진 의지 표명
경제·환경파괴 우려 반발 고조

강릉 주문진·양양 일대에 폐기물매립장 설치 사업이 본격화되자 식발투쟁을 벌이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선)가 27일 주문진항 물양장에서 강릉 주문진·양양 일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청정 강릉 만들었는데 지정폐기물 매립장 웬말이



강릉 주문진·양양 일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를 위한 주민 총궐기대회가 27일 주문진항 물양장에서 열린 가운데 정호선 대책위원장 등 주민 9명이 식발투쟁을 하고 있다.

나, ‘침출수·악취, 해양오염으로 주문진이 다죽는다’ 등의 피켓을 들고 “하루 평균 300t이 정화된다는 침출수와 그 외 다량의 침출수로 우암천과 신리천 등 하천이 오염되고, 결국 동해안바

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어 지역경제가 죽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T환경은 지정폐기물매립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적합판정을 내리

지 말고 매립장 설립 불가함을 선언하라”며 “향후 설명회를 강행하려 한다면 결사항전으로 막을 것이며, 후손들에게 청정 강릉, 청정 양양을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호선 공동대책위원장과 함영희 주문진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주민 9명은 식발투쟁을 하며 강력하게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또 현장에서는 200여개 넘는 주문진 수산시장 내상가들이 문을 닫고, 150여명의 어선들이 경적과 함께 주문진 항 내를 돌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어 1000여명의 주민들은 트랙터 30여대와 종물패를 앞세워 1시간 30여분간 거리 행진을 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궐기대회장소 주변은 물론 주

문진 도심 곳곳에는 폐기물 매립장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내고 “강릉과 양양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생존권을 위협하는 주문진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의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T환경은 오는 8월 14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주문진을 향호리 산 56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34만 4530㎡, 매립면적 16만 1129㎡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04

비 그치고 무더위 '오락가락'... 오늘 영동 일부 열대야

영서·산지 중심 소나기 예보

지난 26일부터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끼치던 장마가 27일 낮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강원도내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도내 주요지점의 낮 최고기온은 삼척 32.4도, 속초 32.4도, 동해 30.6도, 강릉 30.6도 등으로 집계됐다. 홍천 29.3도, 춘천 29.1도, 정선 29.1

도, 원주 28.9도, 양구 28.5도, 횡성 28.5도 등을 기록했다. 특히 삼척의 경우 27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지난 26일부터 27일 오전 6시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50~100mm의 장맛비가 쏟아졌다. 도내 주요지점의 누적 강수량은 원주 신림 174.5mm, 평창 139.5mm, 정선 북평 118mm, 인제 110.6mm, 양구 해안 101.5mm, 홍천 서석 85.5mm, 횡성 청일 80.5mm, 춘천 북산 73.5mm, 철원

장흥 61mm 등으로 집계됐다. 이틀간 이어진 장맛비로 강원지역에는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수조치나 나무 쓰러짐, 낙석 등 피해 신고 13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영월, 평창, 양구, 춘천, 삼척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에는 도 전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불안정현상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20~22도, 영동 22~24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28~30도, 영동 30~32도로 예보된 가운데 영동 일부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 19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막아야

-성추행·희롱 등 실태 조사, 예방 체계 마련을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성추행과 희롱에 쉽게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요양대상자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느껴도, 신고시스템이 미비해 피해가 줄지 않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 보호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의 인권 보장은 양질의 요양인프라 확충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종사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인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 기준 강원지역 요양보호사 1만 8435명 중 여성이 1만 7424명으로 94.5%에 달합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업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희롱 대응 교육을 받지만 가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의상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상황에 대한 공적 대응 장치도 부실합니다. 피해자가 기관에 알린

다해도, 이용자를 바꾸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또한 센터와 기관별로 처리하다 보니 대처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매뉴얼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 조사는 아직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도 단위 지원센터가 마련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센터마다 피해가 지속 인지되면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인권 침해와 업무여건, 직업안정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격증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하는 추세에 맞춰 보호사의 인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직업의 위상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요양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예방 교육과 더불어, 사전에 주의와 경고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이 장기간 근속하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환경과 임금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6 28 ()
/ 19

임금 격차 큰데 누가 오겠나

-업종별 최고 월140만~100만원 격차, 기업유치우려

17개 시·도 중 강원지역이 평균임금 최하위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기업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충청권이 첨단과학기술산업으로 부상한 데 이어 전남과 경북 등지에서 대기업 유치와 투자 협약 소식이 들려오지만, 도내는 감감한 편이어서 우려됩니다. 비수도권 경제악화로 기업 유치 성과가 절박한 시점이기에 도와 시군의 활동상을 더 주시하게 됩니다.

도내 19만여개 사업체 수현황을 보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개 업종이 45%를 차지합니다. 전국적 현상이긴 하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세종은 36%에 머물렀습니다. 업종별 시도 간 평균 임금 격차는 더 압도적입니다. 서울에 비해 강원은 전문, 기술서비스 부문에서 월 140만원 적습니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월 100만원 적습니다. 강원 여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도 월 100만원 적은 것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에서 확인됩니다.

도내 기술전문직에서부터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필요인력의 수급을 어렵게 합니다. 임금이 적으면 기업이 선호할 것이라고 간주하기 쉽지만, 적재적

소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꺼릴 수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전국 최하위인 데다가 특정 부문에 업종이 편중된 현상, 남녀 간 성별 임금 격차 역시 타시도보다 낮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악재 요인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 간에 기업 유치 과열 우려가 나올 정도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인구 30만명 정도의 소도시인 전남 순천시에서는 최근 우주발사체 조립장을 만드는 (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6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포스코리튬솔루션(주)은 배터리 소재사업을 활성화하는 터전으로 역시 순천을 택했습니다.

전형적인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6월 22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민관협력형 틱스타운이 개소됐습니다. 기업유치이든, 창업지원이든 과거와 같이 타시도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인센티브로는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사회경제적 여러 악재 요인 제거를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 06 28 ()

/ 19

반도체교육센터, 클러스터 조성 마중물 되어야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제1호 프로젝트인 반도체교육센터가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사업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첫 사업이다. 반도체교육센터는 원주시 학성동 469-1번지, 구 원주역 일원에 건립된다. 연 3,000여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정, 설계·유지보수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은 반도체 불모지인 강원자치도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경쟁적으로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을 돌릴 사람이 부족해서 걱정이 태산이다. 그만큼 국내 반도체 업계는 어느 때보다 인재 육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신성장 고부가 첨단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의 주요 자산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반도체 산업은 도민들이 기대를 갖게 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당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키우지 못하면 시스템 반도체와 팹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분야의

열세를 따라잡기란 난망하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반도체 인재 육성 없이 반도체 자립은 없다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올 들어 정부가 경기 용인시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주시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도와 원주시는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오히려 메가 클러스터 중심이 원주와 멀지 않은 용인이라는 점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와 추가 인프라 공급, 인력 총원 등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원주가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강원테크노파크도 도와 원주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에 발맞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강원자치도가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과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K-반도체벨트 인력 공급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강원자치도의 미래 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江原日報

2023 06 28 ()

/ 19

자연재해 대응 역량 키울 때 人災 막을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장마 첫날인 지난 26일 제주에는 200mm, 호남과 경남에는 8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다. 강원자치도 영서 지역에는 오는 30일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이다. 다음 달과 8월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

특히 자치단체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집중호우는 반드시 태풍을 몰고 온다. 과거에도 매미, 루사 등 장마보다 큰 피해를 낸 태풍들이 있었던 만큼 태풍 대응에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취약지를 긴급 점검하고 사전 대피 조치 등의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포비’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지역도 복구가 진행 중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68개소 중 6곳은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 도로, 지방하천, 사유림 등이다. 도심 주택가에도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41곳 중 26곳만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춘천(12곳), 강릉(3곳)의 반지하 주택은 이번 주 중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자치단체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장마 때마다 정

부와 자치단체가 땀질식 처방에 그친 점도 ‘예고된 인재(人災)’를 양산했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야 막기 힘들지만 예측 가능한 재난 대비와 판단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천재지변이라 할 정도로 역대급인 이상기후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지만, 그 대처 과정에서 판단을 그르쳐 소중한 인명을 잃거나 안이하게 같은 피해가 되풀이된다면 이는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8월 춘천 의암댐에서 인공 수초섬을 지키려다 경찰순찰정 3척이 전복돼 인명

피해가 났던 사건이 이런 사례였다.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인재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재해에 대한 복구는 신속하게

자치단체, 울여름 역대급 장마 철저한 대비를
저지대·지난해 水害 입은 곳 재점검해야
산사태 취약한 곳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

이뤄져야 한다. 올 4월 발생한 강릉 산불 긴급 벌채 대상 면적 62ha 가운데 8ha만 벌채가 완료됐다. 사업비 전액(21억원)이 국비로 추진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아 시 예산을 들여 일부만 벌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사태 예방, 산지 사방사업도 마찬가지다. 28개소 9.24ha 면적에 옹벽, 큰 돌 등을 쌓는 사업은 7월부터 시작된다. 울여름 장마가 역대급으로 예상되는 것은 기후 변화 때문이다. 평상시와 다른 기상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일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나 천변을 재점검하고 산사태에 취약한 곳도 꼼꼼하게 챙기는 등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